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4. 30.(목) 17:00
- 장 소 : 한화솔루션 사택 렉홀 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안인수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박종일 위원, 천현진 위원(이상 10인)
- 불참위원 : 김종은 위원, 박배현 위원, 이지호 위원, 이현규 위원
(이상 4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이상 5인)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품은 이곳 한화솔루션 사택에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한화솔루션 안인수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경쟁과 공약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여수MBC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수MBC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수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볼 때마다 매우 좋은 입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여수 화학산단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도센터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센터장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시청자와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판단 아래 선거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군 후보자 26명 전원을 인터뷰하여 뉴스데스크에서 요약 보도를 진행했으며, 전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여수MBC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선거 보도 체계를 구성하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현안 뉴스 보도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중 트로트클라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집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섬박람회를 맞아 금오도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며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획단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4월 13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작한 '1948 그녀들' 이 한국PD대상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었으며,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송유라 아나운서와 이선화 작가 등 제작진이 참석하였고, 박소정 위원께서도 축하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제주에서 열린 지역 MBC 편성 책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날로그 테이프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내부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으로부터 2천만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모 결과는 다음 주 발표 예정입니다.

5월에는 지역 MBC 공동 제작 프로그램 '한국의 둘레길' 8부작이 전국 방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8주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5월 하순경 교육 및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선거 보도에서 공약 비교 및 정책 검증 강화 필요 의견에 따라 라디오 인터뷰, Y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와 시민단체 정책 제안, 민주당 경선 논란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라디오 전망대, 이슈체크, 뉴스브리핑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 보도하였습니다. 홍보 영상 논란, 준비 상황 점검, 안전성 우려 등도 함께 다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순사건 관련 컨트롤타워 필요성,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인한 농업 영향, 세월호 12주기 안전문제 등을 보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보고 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의견 조치 사항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으며, 방심위 조치 사항은 1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라디오 전망대에서 승용차 5부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류가 발생하여 계도 조치를 받았으며,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정정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보도센터 보고 대독)

보도센터는 센터장이 직접 보고해야 하나, 회의록 중심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취재 내용은 6·3 지방선거 및 초대 통합시장 선거전 본격화 관련 아이템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D-90 준비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산단 경제 위기 진단과 신산업 전환 관련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및 지역 축제 준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로는 ‘초점 6.3 인물’을 통해 각 시장 후보를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풀버전은 유튜브에 별도로 업로드하여 시리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민주당 당원 명부 파문을 주제로 2회에 걸쳐 집중 대담을 진행하였으며, 취재 기자와 시의원을 초청하여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5월에는 6·3 지방선거 D-30을 맞아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밀착 취재와 후보 검증에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하순에는 선거기획단 중심의 TV 토론회를 통해 격전지 표심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섬박람회도 D-100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만큼 붐업 조성 및 준비 상황 점검 코너를 마련해 취재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D-60 기획으로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경제 현장과 소외 계층 관련 기획 취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초점 6.3 인물’ 기획은 지속적으로 제작·방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산단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뉴스데스크에서 4월 14일과 15일 연속 보도를 진행하였고, 16일에는 현장 애로사항까지 추가로 보도하였습니다. 여수 산단 인프라 및 도로 문제 역시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4월 21일과 22일 보도하였습니다. 여수사건 역사관의 순천 장천동 이전 개방 관련 내용도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취재를 진행 중이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접근 문제도 보도 준비 중입니다. 해당 사안은 전국 뉴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재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및 조치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강도 높게 취재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보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 있게 다루겠다는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으로는 4월 15일 뉴스데스크 영상에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지적되어, 제도 개선 조치를 접수하고 유튜브 영상 블러 처리 등 수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센터 및 보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복현 센터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부와 주변에서도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콘텐츠센터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처럼 대규모 시설이 구축되는 형태가 아니라, 섬 단위로 분산된 형태의 비교적 소규모 행사입니다. 메인 행사장인 진모지구 역시 아직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장은 상당 부분 미비한 상태로 보이며, 저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와 문제 제기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해당 지역이 매립지이고 배수 문제도 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겹치는 시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콘텐츠센터장

제2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행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섬 박람회' 라는 명칭 때문에 대규모 행사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비교적 단순한 페스티벌 성격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행사 규모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현재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장 부지와 관련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사 전까지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근 여수MBC 보도는 지방선거와 행정통합, 산단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대표이사

지역에서 직접적인 평가를 듣기는 어렵지만, 선거와 행정통합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충실히 보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사전 점검 차원의 보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콘텐츠와 보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수MBC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 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금오도 촬영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기존에 제작된 거문도, 하화도 등 다양한

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섬의 모습과 지역 기록을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여 추가 콘텐츠 제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방송사업센터장 정용우 센터장의 사업 설명을 들겠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사업센터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 광양에서 개최된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약 5천 명이상이 참가하여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일 날씨가 좋아 행사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MBC 주관으로 하동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은 올해도 수주하여 운영 중이며, 4월 20일부터 기후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식 행사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거북선축제와 연계하여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에는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연극 ‘노인의 꿈’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숙, 이일화 배우가 출연하며, 현재 티켓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5월 주요 계획으로는 낭만버스킹 공연을 10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정채봉 문학상 공모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말 시상까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확정 이후 방송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시장과 교육감 후보자 방송연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수 지역의 관광객 감소와 산단 위축으로 인해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방송사업센터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개인택시 면허권 가격입니다.

여수는 타 지역에 비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관광객 감소와 산단 경기 악화로 인해 면허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안인수 위원

여수MBC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 인터뷰를 압축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 특히 젊은 층은 유튜브 중심의 짧은 콘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도 후보자 입장과 공약을 압축 정리하여 제공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 토론회나 공약 발표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간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면 시청자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섬박람회 홍보와 관련하여 총주맨 사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 홍보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준비 부족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일부 보도로 인해 섬박람회가 '제2의 잼버리'로 오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 상황을 보면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전략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공공기관이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여수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안인수 위원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주 위원

앞선 의견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인터뷰는 매우 인상 깊게 시청하였으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요 공약을 자막 등으로 함께 제시했다면 이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본선 기간에는 후보자 등장 시 주요 공약을 함께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시청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섬박람회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섬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면 해안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함께 조명한다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MBC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나 보도를 통해 참여해 주신다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및 중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청소년 중독 예방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일회성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순히 마약뿐 아니라 약물,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중독 예방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역에서도 마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박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현 위원

섬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홈페이지 구성과 예매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튜브 홍보 역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협업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한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뱃길 운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진모지구의 지형적 한계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 대표이사

진모지구는 수심이 낮아 직접 접근이 어렵고, 인근 깊은 수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돌산 진입로 역시 제한적이어서 교통 병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박병현 위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교통 수단 도입보다 기존 교통 흐름에 대한 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 혼잡은

행사장 인근으로 차량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므로, 사전 안내를 통해 분산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제도라도 운영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장비 보유 기준이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는데, 행정통합 이후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으로 의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 등 의료 장비는 단순히 자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총량 관리 하에 운영되는데, 통합 이후 주변 지역의 허용 물량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의료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행정통합의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통합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여수MBC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데, ‘우리말 나들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앙 방송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 방송과 유사한 내용을 연계하여 반복 학습 형태로 구성한다면 청취자, 특히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제를 일정 기간 함께 다루거나 퀴즈 형식으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애숙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 지역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크고,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 방송도 시청하였고, 오늘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후보자 관련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여수 지역은 어느 때보다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수MB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섬박람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모지구는 처음부터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말이면 여수 시민들도 돌산 방향으로 이동을 꺼리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대

규모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박람회장과 그 주변에는 기반시설과 넓은 부지가 갖춰져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어느 순간 진모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부터 우려가 있었고, 최근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섬박람회는 여수세계박람회와 달리 두 달 동안 운영되는 페스티벌 성격의 행사이고, 시설물도 영구 시설이 아니라 행사 후 철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공정률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언론이 분명히 짚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준비 상황과 운영 방식, 행사 이후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수MBC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지만,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은 이미 올해 초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 선거구 획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저도 얼마 전 순천 관련 뉴스가 전국 일간지 사설과 1면 기사로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지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호남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또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애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연 위원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수MBC 보도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외부 기관에서 저희 대학의 글로벌 그린바이오사업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지역 산업과 산학협력 사례를 확인했는데, 방문 계기가 여수MBC 보도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집 기획 보도와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 사업이 소개되었고, 이를 보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수MBC 보도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추진 중인 산업이나 정책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각 지역의 특성과 사례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지역 간에 연결하여 공동 기획 형태로 보도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바이오와 같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성공 사례와 추진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방송한다면, 시청자뿐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다양한 지역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사례나 타 지역의 성공 사례가 소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졸업생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해당 학생은 수도권으로 이동 후 1인 창업을 통해 단기간 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사례였습니다. 이를 보며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창업 지원 정책을 보면 양적인 확대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이 유도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은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준비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경우 실패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인큐베이팅 이후 자립 단계로 넘어가야 하나, 실제로는 이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성공적인 창업 사례와 준비 과정,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등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원격 근무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에 머물면서도 창업이 가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한다면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경숙 위원

보도 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선거 과정에서 긍정적인 공

약을 제시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가 목욕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실제로 마을 단위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목욕탕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마을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의원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마을별로 주 1회 버스를 운영해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주민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이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들이 보다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보편적으로 제도화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향후 법적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통합과 맞물려 교육자치 관련 제도 변화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변화와 그 의미,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일 위원

오늘 새벽에 시청자위원회 관련 생각을 하다가 말씀드려야겠다고 느낀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양 지역에서는 중요한 산업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고용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포항 약 3,800명, 광양 약 3,200명 규모입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 등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근로 여건은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동일 임금 요구 등 갈등 요

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익 배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과 보상, 기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과거 채용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청년층의 기초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일정 계층이 소외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이후 학습 과정에서 상위권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여러 갈등 요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 체계도 단일한 대학 진학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와 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실용 교육, 직업 윤리 교육, 기본적인 사회 적응 교육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이나 문제들도 이러한 구조적인 교육 문제와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사회 전반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일 위원님은 포스코 대외협력 임원으로, 협력사 3천 명 이상 직고용은 지역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 대표이사

해당 사안은 이미 두세 차례 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현진 위원

최근 3개월간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수MBC가 지방선거 보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초점 6.3 인물’ 코너를 통해 후보자 전수를 인터뷰한 부분은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예비 후보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에서 일부 발언이 중복되거나 장황한 부분

도 있었지만, 이를 자막으로 잘 정리하여 전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후보자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구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래픽이나 별도의 자막 등을 활용한 정책 비교가 보완된다면 시청자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한겨레 보도에서 여수MBC의 지방선거 보도가 우수 사례로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지형상 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러한 보도 방향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도 정책 검증과 후보 분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단순히 후보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과정까지 함께 검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현실성까지 포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후보자 중심 보도에서 나아가 지역의 핵심 의제를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 위기, 의료 인프라, 청년 유출, 지역 소멸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비교·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도와 콘텐츠에서 청년층과 젊은 세대의 모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여수MBC가 지역 구성원의 이야기를 담는 매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대표이사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젊은 층을 화면에 담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지만, 거리의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눈에 띄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뉴스 제작 방식입니다. 결국 디지털 포맷에 친화적인 콘텐츠, 디지털 방식의 설명 문법,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하며,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현진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소정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오늘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거듭될수록 위원들께서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가고 계시고, 의견의 내용도 매우 풍부해졌으며 핵심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최근 한국PD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여수MBC뿐만 아니라 지역 MBC들이 다수 수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PD들이 직접 평가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MBC가 방송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4월 들어 MBC 뉴스를 자주 시청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았으나 보도의 노출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진 점은 아쉬웠습니다. 주요 이슈들이 충분히 설명되기 전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시청자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편성시간이 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현재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로, 준비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부권을 기반으로 하는 여수MBC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통합 환경에서 여수MBC가 어떤 언론 환경과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여수MBC가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힌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언론의 역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즉각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언론이 보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언론은 지역 공동체와 다수 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나 기업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정치 환경과 관련하여, 인물 양성과 정치적 기반 형성에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와 연계된 교육감 선거는 지역 미래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과 보도가 부족한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정당 간 균형 측면에서도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한 관

심과 보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질문이 다소 평이한 측면이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비전과 자질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보다 예리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시청자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다만 이미 개최가 결정된 만큼, 향후에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문제 제기와 감시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와 지역 역량 결집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여수MBC가 '로컬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대표이사

2023년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당시를 돌아보면, 지역 상황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박람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공인된 인증 박람회라는 점에서 명칭과 실제 규모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지역 발전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회사 차원에서 보도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수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상시 자막을 활용한 D-day 카운트다운, 스포츠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와 제작 역량을 집중 투입하였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이번 섬박람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를 진행 중이며, 행사 개최 약 30일 전부터는 보도와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측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과 보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침 박광수 보도센터장께서 참석하셨으므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보도센터장

현재 선거 기간으로 보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 시즌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현안 정리로 인해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속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비교와 공약 검증의 중요성, 그리고 유권자 목소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도에 있어 균형 있는 시각과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수MBC 임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4월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센터장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일정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LG 이현규 위원님께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서울 본사 회의 일정이 있어 시청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회의 일정을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요일 일정이 있으니, 이의 없으시다면 한 주 당겨 매월 세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